협회, 어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효율적인 어항관리 가능해져

한국어촌어항협회는 6월부터 국가어항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어항정화 및 연안정화 관리 업무를 온라인화 하는 "어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fishingport.or.kr/)"을 정상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및 관리주체(정부)의 효율적인 어항관리가 가능해졌으며, DB정보를 이해관계자와 공유 · 모니터링 및 일반 국민에게도 전파할 수 있게 되어 투명행정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어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시스템은 '어항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과 '어항 및 연안정화관리시스템'으로 나뉜다.

어항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은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정부수탁으로 수행하는 국가어항 기본시설물의 안전점검업무를 전산화하고 업무의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어항의 관리자 및 이용자, 시공 · 용역업체 등과 함께 공유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항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구축된 상시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이다.

어항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http://safe.fishingport.or.kr)이 제공하는 정보와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어항별, 지역별, 연도별 국가어항 기본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어항관리현황의 통합 DB 관리 및 정보의 제공
⇒ 어항시설에 대한 변경 · 보수 · 보강 · 이전 · 확장 등 어항정비계획 수립 도모가능
⇒ 어항관리자의 어항관리 지식정보 지원체계 구현으로 신속한 보수 · 보강 등 어항관리 효율화
⇒ 각 어항에 대한 안전점검대장, 년도별 안전점검보고서, 어항 관련 전문자료실을 운영하여 자료 제공
▷ 안점점검계획 및 실시간 안전점검정보 제공, 수시 안전점검실적 보고와 긴급점검 및 수중정밀점검요청 온라인화
⇒ 어항시설안전점검업무 감독관청의 지도 · 감독 체계 실시간 온라인화
⇒ 어항관리자와 점검자, 이용자 등과의 유기적인 어항관리 협력체계 구축
⇒ 상시 어항안전점검시스템 정착 및 우심시설의 신속한 예방점검 도모가능

어항 및 연안 정화관리시스템은 어항청소선 및 다기능수거선을 관리(정부위탁 국유재산)운영하여 추진하는 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업무를 통합 전산화하고 업무의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정부, 관리주체, 어업인 등이 함께 공유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함으로써 어항 및 연안수역의 효율적인 정화관리를 도모하고자 구축된 상시 정화관리정보시스템이다.

어항 및 연안 정화관리시스템(http://safe.fishingport.or.kr)이 제공하는 정보와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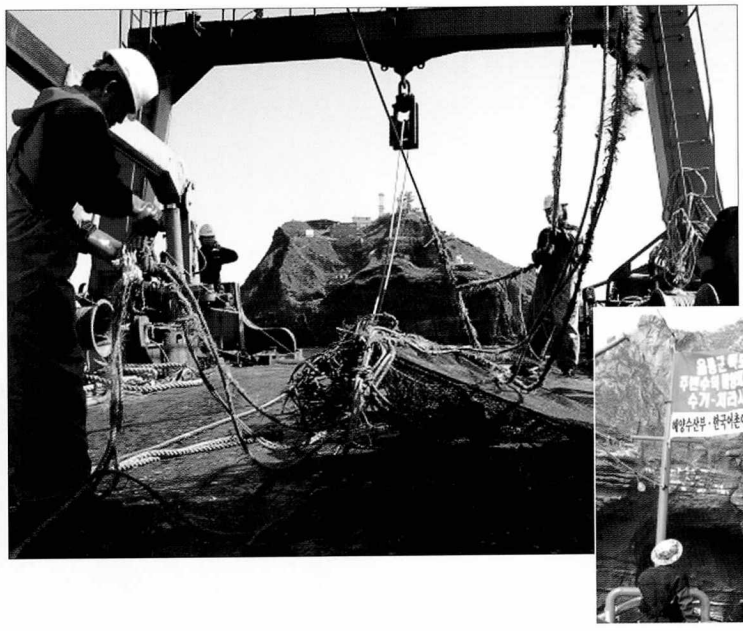
▷어항별, 지역별, 연도별, 폐기물 성상별, 선박별 어항 및 연안수역 정화현황의 통합 DB 관리 및 정보 제공
⇒ 어항 및 연안수역 정화를 위한 효율적인 어항환경개선계획 시행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
⇒ 어항 및 연안수역 정화 관리자의 어항 및 연안정화 지식정보 지원체계 구현으로 어항 및 연안수역 정화관리 효율화

▷선박운항계획 및 실시간 선박운항정보, 어항 및 연안수역 정화요청 온라인화
⇒ 선박관리운영업무 감독관청의 지도 · 감독 체계 실시간 온라인화
⇒ 각지방청, 시 · 군 일선수협, 어업인 등과의 유기적인 정화 협력체계 구축
⇒ 상시정화시스템 정착 및 오염우심 어항 및 연안수역의 신속한 정화 지원

특히 어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은 '모니터링 채널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상설화하여 어항시설 안전점검과 어항 및 연안수역 정화관리업무에 대한 평가체계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얻게 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관리주체인 정부와 이용자(어업인, 일선 수협)의 만족도 측정 및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어항관리주체와 어항이용자에 대한 상호 활동적인 인터넷 기반 고객관계관리(e-CRM)가 실현가능해졌다. 셋째, 안전점검의 효율성 및 적시성 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협회, 독도 주변수역 해양정화 사업 추진

KBS VJ특공대 촬영, 6.29 방영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5월 21일부터 울릉군 독도 주변 수역 1,600ha (독도주변수역 수심 100m이내)에 대한 해양정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7월 19일까지 60일 동안 진행될 이번 사업은 울릉군 독도 주변수역의 어족자원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수중 오·폐물을 인양하여 어장의 조기 회복에 기여하는 것과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 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이용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기반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도주변수역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번 '울릉군 독도 주변수역 해양정화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독도 주변수역 해양정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협회가 수행하는 독도 주변수역 정화 사업은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이므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번 해양정화사업으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청정해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독도 주변의 오염실태를 국민에게 알리게 됨으로써 해양오염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해양정화사업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협회의 활동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기준이 점차 강화되어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양정화사업도 전 연근해수역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와 환경에 대한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이 최근 VJ특공대에서는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독도주변의 해양정화 활동을 촬영하였다. 촬영내용은 KBS 2방송 6월 29일(금) 9시 55분 방영될 예정이다.